

서호인의 '좌측담장'



바라지만 말고

메이저리그는 '재키 로빈슨 데이'라는 게 있다. 등번호 42번을 달았던 이 선수수는 브루클린 다저스(현 LA 다저스) 소속으로 월드 시리즈 우승을 맛봤고, 데뷔 시즌 신인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꾸준한 기록을 보이기는 했지만 압도적으로 대단한 성적은 아니었던 이 선수는 그러나 1962년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그는 메이저리그의 최초 흑인 선수다. 지금이야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그라운드에 서지만 불과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니그로 리그'라고 하여 유색 인종의 야구 리그가 따로 있었던 미국이었다. 재키 로빈슨이 메이저 계약을 맺는 데 있어 가장 큰 변수는 연봉이나 조건이 아니라 '부당한 조건'(인종 차별)을 감내할 수 있을지 여부였다. 그는 관중의 노골적인 야유, 상대 투수의 빈볼, 편파적인 판정, 심지어 살인 협박까지 감수해야 했다.

매년 4월 15일은 모든 메이저리그의 선수들이 42번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다. 이는 재키 로빈슨이 경기에 나서면 총으로 쏘 버리겠다는 누군가의 협박에 "그럼 모두가 42번을 입으면 누군지 모를 거야"라고 했던 동료의 농담

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매년 4월 15일은 모든 선수가 흑백이 아닌 등번호와 포지션만으로 구분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날이 된다. 인종 차별과 소수자 혐오를 배척하는 일에 야구가 사회적 목소리를 가장 야구다운 방식으로 내는 날이기도 하다.

한국 프로 야구 초창기의 캐치프레이즈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이었다. 1982년 개막전 시구는 전두환이 맡았다. 그가 권력을 보전하는 행태로 3S 정책을 펼쳤으며, 프로 야구 또한 그 일환이었음을 모르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이다. 권력의 의지로 출범한 프로 야구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담을 기업이 떠안아야 했다. 오너의 고향, 초기 사업장, 공장이 나 분사의 펀딩 등을 감안하여 연고지가 할당되었다. 해태 또한 호남을 연고로 한 기업이였기에, 광주에 자리를 잡고 야구단을 차렸던 것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팀 수가 늘어나고 규모가 팽창했음에도 여전히 한국의 프로 야구는 대기업의 홍보비(썬드 돈)로 운영되는 구조다. 어찌 됐든 다른 종목에 비해 확고한 연고지 의식이 생성된 것은 사실이다. 연고지를 바탕으로 프로 야구는 국내 스포츠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

허할 만큼의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됐다. 군사 독재의 부산물로 시작한 야구가 이제는 기업과 지역이라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상징하는 국민의 즐길 거리로 거듭난 것이다.

메이저리그가 미국에서 갖는 영향력보다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우리에게 미치는 그것이 더 작다고 할 수 없다. 프로 스포츠 시장을 지배하는 단독자로서, 800만 관중을 현장으로 불러 모으고, 그 이상의 팬들을 텔레비전 앞에 앉혀 있게 하는 콘텐츠는 국내에 없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사회와 공동체에 KBO는 어떤 책임감을 갖고 복무하고 있을까.

혹자는 우리나라에서 지역 차별과 혐오의 정서가, 그 민낯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이 야구장과 야구 게시판이라고 말한다. 워낙 단단한 지역 연고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지역적인 구도가 일정 부분 잡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야구 커뮤니티나 포털의 댓글은 심각한 지점에 이르렀다.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멸칭(蔑稱)이 난무하고 가혹한 비난이 쏟아지는 현장을 그저 일부라고 손 놓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야구로부터 비롯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성별, 나이와 학벌 등 우리

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을 재단하고 배제한다. 긴 시간 쌓여 온 적폐를 야구가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양적으로 성장한 프로 야구가 성격과 순위나 경기와 플레이가 아닌 방법으로도 팬들에게 돌려줄 것은 돌려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KBO 차원에서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캠페인을 본 적이 없다. 선수 개인의 기부 관련 뉴스는 있어도, 리그 차원의 사회적 역할은 '최소한'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재키 로빈슨 데이는 그저 한 선수를 기리는 날이 아니다. 미국의 야구가, 인종 차별에 반대하고 있다는 강력한 선언이다. 이 선언은 야구팬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 우리 프로 야구는 어떤 선언을 하고 있는가. 어떤 영향력을 팬에게 주려고 하는가.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며 시작했는데, 그 어린이들은 이제 세금도 잘 내고 별의별 의무도 다 지러야 하는 40대가 되었다. 이제 한국 프로 야구도 우리 사회에 무언가를 주어야 할 때이다. 바라지만 말고.

(시인)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료칼럼



이창선 광주우리들병원 원장

무조건 좋은 운동이란 없다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알려주는 약이나 운동 방법이 그 많다. 그중에서도 '운동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일반적으로 '운동'하면 사람들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견만 맞는 말이다. 정말 운동이 좋은 것이라면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일은 드물 것이다. 하지만 운동 선수나 운동 전문가들이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관절염 등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는 의외로 많다. 열심히 운동할 당시엔 모르지만 운동할 때 자세나 강도, 횟수 등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몸에 이상 증세가 하나, 둘 생기기 때문이다. 이때 이상을 느끼고 빠르게 원인을 바로 잡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병이 된다.

요즘에는 이러한 운동 부작용이 조금씩 알려지며 운동의 방향도 바뀌고 있다. 과거엔 열심히하는 운동이었다면 현재는 운동하는 목적과 내 몸 상태에 맞춰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주변에서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기 힘들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비용이

비싼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혼자서 하기에 사막을 횡단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 포기할 수는 없는 운동,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 허리나 목이 아픈 환자라면 말이다.

먼저 하나 짚고 가자. 우리가 운동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을 신뢰하지 마라. 미안한 얘기지만 인터넷 어디에 나에게 100% 맞는 운동정보는 없다. 애초에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몸무게나 근육 정도, 생활 습관 모든 게 다른 우리인데 모든 사람에게 맞는 운동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말이 안된다.

또 하나 얘기하자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허리'를 치면 자동 완성 검색어로 '허리아플 때 좋은 운동'이라는 키워드가 뜨고 수많은 정보가 나온다. 미안한 말이지만 거기엔 정말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없다. 이미 제목부터가 잘못됐다. 허리가 아플 땐 운동을 할 게 아니라 쉬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정보를 맹신하여 '허리아플 때 좋은 운동'을 따라하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오는 경우를 본

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운동이나 신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운동을 하기 전에 현재 내 몸 상태에 대해 정확히 측정하고 운동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어떤 운동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할지를 트레이너나 의사에게 물어보자.

어느 정도 갈피가 잡혔다면 운동을 시작하는데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걸 추천한다. 첫 번째 워밍업은 가벼운 걷기를 통해 몸에서 열이 살짝 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다. 두 번째인 스트레칭은 운동 중 부상 방지를 위해 몸 구석구석 진행한다. 세 번째는 본격적인 운동이다. 네 번째 역시 스트레칭으로 운동 중 쌓인 피로를 줄인다. 이 중 세 번째 본격적인 운동에서는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통증이 있을 경우 즉각 운동을 멈추길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운동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하면 내 몸이 빛을 발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운동을 하면 내 몸이 비명을 지를 것이다.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건강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

社說

이도 저도 아닌 대입 개편안 다시 보완해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늘릴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지역 교단에서는 이 방안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되래 키울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그제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대입 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가장 치열한 쟁점이었던 선별 방법 비율과 관련해서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게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 수능 평가 방식은 현행 절대 평가인 영어와 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 평가로 바꾸고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상대 평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지역 교육 현장에서는 대입

시도민들이 문화 예술을 멀리하는 까닭은

최근 문화 예술 관광 국제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7 국민 여가 관련 신용카드 지출액 현황'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신한카드사로부터 지난해 시민들의 신용카드 자료를 제공받아 여가 관련 지출액을 분석한 자료이다. 여가를 위해 문화 예술을 즐기는 계층이 늘었다. 이 중 문화 예술 활동은 공연 관람과 사진 촬영, 악기 연주, 미술 공예 참여, 음악 감상을 포괄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들의 여가 관련 신용카드 지출액은 235조 원 규모. 이를 사·도별로 살펴보면 서울(43.1%)과 경기(25.2%)에 비해 광주(1.6%), 전남(1.5%)은 아주 미약한 수준이다.

특히 문화 예술 부문 지출액 분석 결과에서는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문화 예술을 얼마나 멀리하고 있는지 고스란히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돼 수도권이나 대도시 거주 학생, 재수생만 이득을 보고 광주·전남 지역 학생들은 다수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개정 교육 과정에 맞춰 그동안 고교 교실에서는 토론과 독서, 체험 활동, 수행 평가 등을 중심으로 수업을 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정식 확대된 방향이 바뀌면 '학교 교육 따로, 대학 입시 따로'인 상황이 빚어져 교육 현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권고안은 수능 절대 평가제와 고교 학점제 도입, 혁신학교 확대 등 정부가 내건 교육 정책과도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 종합적인 대입 제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지역 교육계의 우려를 반영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입시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드러난다. 전국적인 문화 예술 활동 부문 신용카드 지출액은 1조1000억 원인데 광주는 206억 원, 전남 135억 원으로 전체의 1.9%와 1.2% 수준에 그쳤다. 서울(41.6%)과 경기(25.6%)는 물론 부산(4.3%), 대구(3.3%), 대전(2.6%)에 비해서도 훨씬 적다. 전남 역시 울산(1.1%)과 세종(0.2%)과 함께 전국 꼴찌 수준이다.

이처럼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문화 예술 관련 활동이 저조한 것은 침체된 지역 경제 상황과 함께 문화 인프라 부족, 공연·전시 관람 기회 부족 등 많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시도민들의 여가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적인 지역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맹위를 떨치고 있는 폭염으로 인해 '나다니는 게' 만만치 않다. 특히 고역인 것은 잠시 멈춰서 신호등을 기다릴 때다. 나무 그늘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풀 한 포기 보이지 않는 띄약별 아래서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왜 이리 신호가 안 바뀌나' 죄 없는 신호등만 원망한다. 그럴 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반가운 게 있다. 요즘 시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무더위 쉼터'다.

생각해 보니 지난겨울에는 추위를 막아 주는 쉼터가 있었다. 겨울용 쉼터는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 전망 형태로 만들어야 하니 품이 많이 들어간다. 이에 비해 여름용 쉼터는 파라솔 형태 등으로 내리쬘는 햇빛만 막아 주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다.

겨울용 쉼터를 볼 때마다 늘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닌데 좀 더 예쁘게 하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대부분의 쉼터가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제작돼 있는 데다 어떤 것은 너무 칙칙하게 보여 휘장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쉽게 들지 않았다. 올 초 서울 출장을 갔을 때 예술의 전당

앞에 세워진 쉼터를 보고 '이거다' 싶었다. 투명한 비닐 천막에 알록달록 꽃과 나비가 춤을 추고 있었다. 천막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추위를 피해서 좋은 타인데, 길을 걷고 있는 나는 예쁜 그림이 그려진 소박한 작품을 본 듯해 기분이 좋았다.

현재 각 구청에서 설치한 무더위 쉼터는 동구 25개를 비롯해 모두 70여 개다. 몇몇 구청은 8월 안에 몇 개를 더 설치한다고 한다. 설치비는 개당 100만 원~330만 원까지로 다양하다. 내가 살고 있는

'쉼터'와 스트리트 아트

서구의 쉼터가 있더라. 겨울용 쉼터는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 전망 형태로 만들어야 하니 품이 많이 들어간다. 이에 비해 여름용 쉼터는 파라솔 형태 등으로 내리쬘는 햇빛만 막아 주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다. 겨울용 쉼터를 볼 때마다 늘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닌데 좀 더 예쁘게 하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대부분의 쉼터가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제작돼 있는 데다 어떤 것은 너무 칙칙하게 보여 휘장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쉽게 들지 않았다. 올 초 서울 출장을 갔을 때 예술의 전당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6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매 체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01)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